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리스크 보고서 2026



Your Risk Management
Advantage

LRQA.COM

목차

보고서 개요: 리스크 현장에서 본 현실과 시사점	→
보고서 발간 배경	→
핵심 요약	→
1. 응답자 구성: 데이터로 본 리스크 환경	→
2. 기후 성과 리스크: 선언적 목표에서 실질적 이행으로	→
3. 책임 있는 조달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와 증빙·참여 체계 강화	→
4. 통합 리스크: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의 연계	→
5. 업종별 분석: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양상	→
6. 물리적 기후 리스크: 공급망 차질, 노출 수준 및 대응 역량	→
7. 규제 환경 전망: 대응 준비 수준과 주요 쟁점, 적용 시점	→
8. 리스크 관리에서 회복탄력성 확보로: 2026년 이후의 시사점	→
9. 종합 정리: 보고서가 시사하는 핵심 메시지	→
맺음말	→
보고서 이용 안내	→

보고서 개요: 리스크 현장에서 본 현실과 시사점

[이전](#)[다음](#)

본 보고서는 현재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공급망 환경 속에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는 이론이나 원론적인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LRQA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여러 지역과 산업에 걸쳐 8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에는 LRQA 고객사를 포함해,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리스크 관리 이슈에 이미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대응 수준과 고민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분야의 리더에게 본 보고서는 동종 기업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신뢰와 경쟁력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 ➔ 목표 설정, 성과 측정, 공시 및 어슈어런스 수준 등 기후 성과의 성숙도
- ➔ 협력사 평가, 어슈어런스 및 참여 활동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달 운영 현황
- ➔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기능 간 연계 수준
- ➔ 공급망 내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
- ➔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중장기 대응 우선순위

보고서 전반에 제시된 데이터는 기업이 우선순위와 역량, 증빙 체계를 어떻게 정렬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영역과, 향후 성과를 보다 빠르게 확대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점도 함께 짚어줍니다.

본 보고서는 기업 간 성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리스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제시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눈에 보기

- ➔ 조사 대상 기업 수: 837개
- ➔ 응답자 구성: 글로벌 기업
- ➔ 조사 대상: LRQA 고객사 및 관련 이슈에 참여 중인 기업
- ➔ 조사 초점: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보고서 발간 배경

[이전](#)

[다음](#)



LRQA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하며, 리스크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을 비롯해 품질 보증, 안전 관리, 사이버 보안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RQA는 공급망과 사업 환경 전반에서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쌓아 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숙도 수준이 서로 다른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집계·익명화된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시장 전반에서 보다 근거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기업들이 선언적 약속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요약

이전

다음



기업들은 2026년에 접어들며, 불과 3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리스크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동성의 확대, 지정학적 불안정성, 규제 범위의 확장, 그리고 공급망 전반에 대한 감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에서 ‘충분하다’고 평가받기 위한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83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장은 이미 인식 단계에서 벗어나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축 목표가 설정되고, 협력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기후 리스크는 이제 경영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의지와 실행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예산 제약, 복잡한 공급망 구조,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데이터 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간극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좁혀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기후 성과를 관리하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탄소 감축 또는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중 52%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정의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외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검증까지 진행한 기업은 22%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후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증받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Scope 3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며, 11%는 배출량 측정을 위한 체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 관련 주장에 대한 규제와 법적 검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기업이 대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목표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조달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력사 ESG 평가는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전체 기업의 44%는 평가 대상을 핵심 협력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하위 단계 협력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15%는 여전히 공식적인 협력사 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간의 연계 수준도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기능이 충분히 연계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분명 리스크 요인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근거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준비 수준과 신뢰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52%

외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목표



25%

Scope 3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업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기업의 약속이 확대될수록, 가장 큰 리스크는 목표의 수준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입니다. 기후 영향, 공급망 리스크, 인권 이슈가 실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될 때에만, 기업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실행으로 이어지며, 이는 리스크 노출을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이안 스푼딩(Ian Spaulding)
LRQA 최고경영자(CEO)

1. 응답자 구성: 데이터로 본 리스크 환경

이전

다음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리스크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해당 리스크가 놓여 있는 조직의 운영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은 기업 규모, 사업 지역, 지배구조 성숙도 측면에서 폭넓은 분포를 보이며, 서로 다른 운영 방식 속에서 리스크가 어떻게 인식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1 조직 규모와 운영 여건

이번 설문조사에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및 공급망 리스크가 더 이상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기업 규모를 공개한 829개 기업 가운데 58%는 임직원 수 500명 미만이었고, 31%는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임직원 수 100~500명 규모의 기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이들 기업은 규제 강화와 고객 요구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내부 인프라는 대기업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 규모 분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견 규모 기업들은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달 기준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 압력과 함께 새로운 공시·실사 요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 기업이 처한 규제 환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 기업의 약 70%가 임직원 수 1,000명 미만으로, 현행 EU 제도상 일부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준수보다는 고객의 기대, 계약 조건, 공급망 요구에 먼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제도화 수준, 보고, 어슈어런스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향후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자신의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견 규모 기업은 제한된 내부
자원으로 점점 더 많은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
기업 규모 분포

→ 31%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28%

새롭게 떠오르는
부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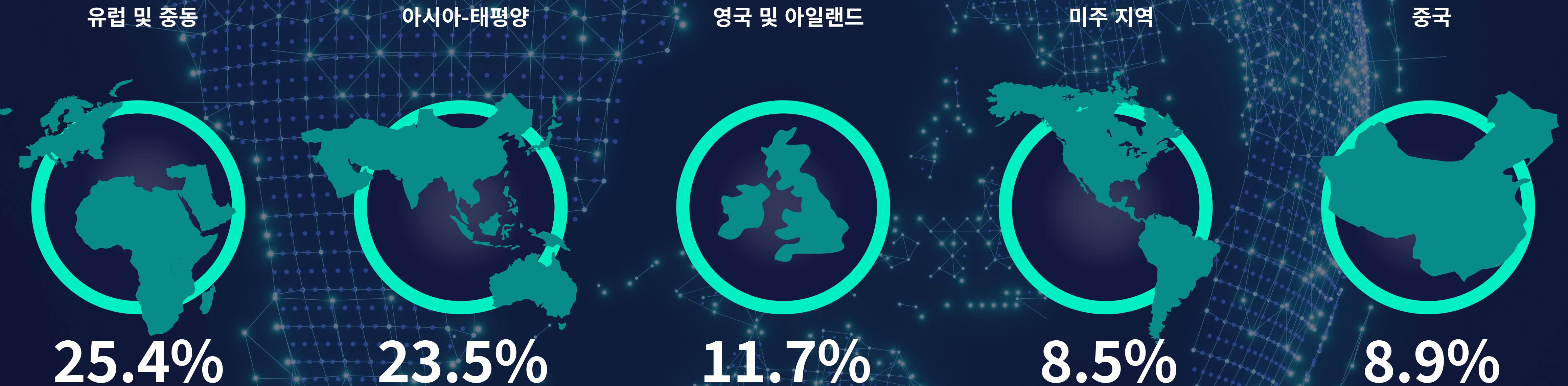
→ 58%

임직원 수
500명 미만

1.2 사업 지역과 리스크 노출

응답 기업 가운데 약 4분의 1(204개 기업)은 글로벌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7개 기업은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영국·아일랜드 제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219개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영국·아일랜드(109개), 미주 지역(80개), 중화권(83개) 등 여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분포는 기업이 마주하는 리스크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사업 지역이 넓을수록 규제 환경은 복잡해지고, 협력사 관리의 부담과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함께 커집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중첩되는 규제 체계, 서로 다른 노동·환경 기준, 지역별로 상이한 기후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내부 운영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친 공급망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식하는 리스크를 담고 있습니다.



1.3 ESG 전략의 성숙도: 도입 현황과 격차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7%는 이미 ESG 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30%의 기업은 ESG 전략을 수립 중이거나(17%), 향후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고(14%) 응답했습니다. 반면, 12%는 아직 ESG 전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포는 시장이 안정 단계에 도달했다기보다는, 전환 국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략 도입 자체는 널리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는 규제 준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략적 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이 개별 과제로 흩어지기 쉽고,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결과를 일관되게 정리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1.4 리스크 분석

시장 전반이 아직 전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ESG 전략의 성숙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기업이 변화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요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며, 시나리오를 고려한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투자하는 기업일수록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활동을 점진적으로 맞춰 나가고, 기대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0% 이상

ESG 전략이 없는 상태

*1% 무응답

1.5 기능별 책임 구조: 거버넌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응답자 구성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기능별 책임 구조입니다. 응답자 가운데 45%는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31%는 기후 성과만을, 23%는 책임 있는 조달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1%에 그쳤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조직 규모와 기능 간 연계 수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규모 기업일수록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을 담당하는 조직 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35%가 두 기능이 완전히 연계되어 있다고 답했고, 44%는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연계가 전혀 없거나 (6%)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그쳤습니다. 중견 규모 기업은 과도기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46%는 두 기능이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답했지만, 완전한 연계를 이루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낮아졌습니다. 동시에 34%는 기능 간 연계가 없거나(17%), 각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17%) 답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양극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24%는 두 기능이 완전히 연계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연계가 없거나(22%)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합산 38%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조직 규모가 기능 간 연계를 필요로 하는 정도와,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여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의 통합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조직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기업 규모별 비교

대기업

35% 충분히 연계

44% 부분적으로 연계

21% 연계 없음(6%)
또는 독립 운영(15%)

중견기업

19% 충분히 연계

46% 부분적으로 연계

34% 연계 없음(17%)
또는 독립 운영(17%)

소규모 기업

24% 충분히 연계

22% 부분적으로 연계

16% 독립 운영

1.6 응답자 구성이 보여주는 리스크 환경

응답자 구성을 종합하면, 시장 전반에서는 리스크 노출이 확대되는 한편 준비 수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업들은 더 넓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복잡해진 공급망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과제에는 서로 다른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일관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후에 제시되는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후 측정, 협력사 관리 범위, 프로그램 통합과 관련해 뒤에서 확인되는 격차는 단순한 실행 부족이라기보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성숙도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부담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이러한 압박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며, 신뢰성과 확장성을 갖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에 투자할수록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기후 성과 리스크: 선언적 목표에서 실질적 이행으로

지메나 클라우어(Jimena Klauer)
LRQA 기후 성과 부문 커머셜 전략 총괄



기후 성과는 이제 기업의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은 검증을 받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목표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극은 주로 평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운영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 목표 설정 현황 - 검증의 문제

기후 성과를 담당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목표 설정이 이미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탄소 감축 또는 넷제로 목표가 전혀 없고, 이를 수립할 계획도 없다고 답한 기업은 9%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17%는 현재 목표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기후 관련 약속의 필요성은 시장 전반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이는 목표의 설정 여부보다,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에서 나타납니다. 기후 성과를 담당하는 응답자 가운데 52%는 목표가 내부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외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같은 공인된 체계를 통해 목표를 검증받았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내부 목표는 조직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후 목표가 조달, 투자, 공시 과정에서 점차 더 자주 활용되면서, 논의의 초점은 목표의 존재 여부에서 벗어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며, 어떤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프레임워크의 채택 여부라기보다, 목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입니다.

기업의 규모나 산업을 불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이를 이행할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또는 명확한 사업적 맥락 없이 목표가 설정된 경우 리스크는 쉽게 확대됩니다. 반대로 규제와 시장 환경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고객과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접근은 보다 안정적인 대응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제 목표는 의도보다,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검증은 성과를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공통의 기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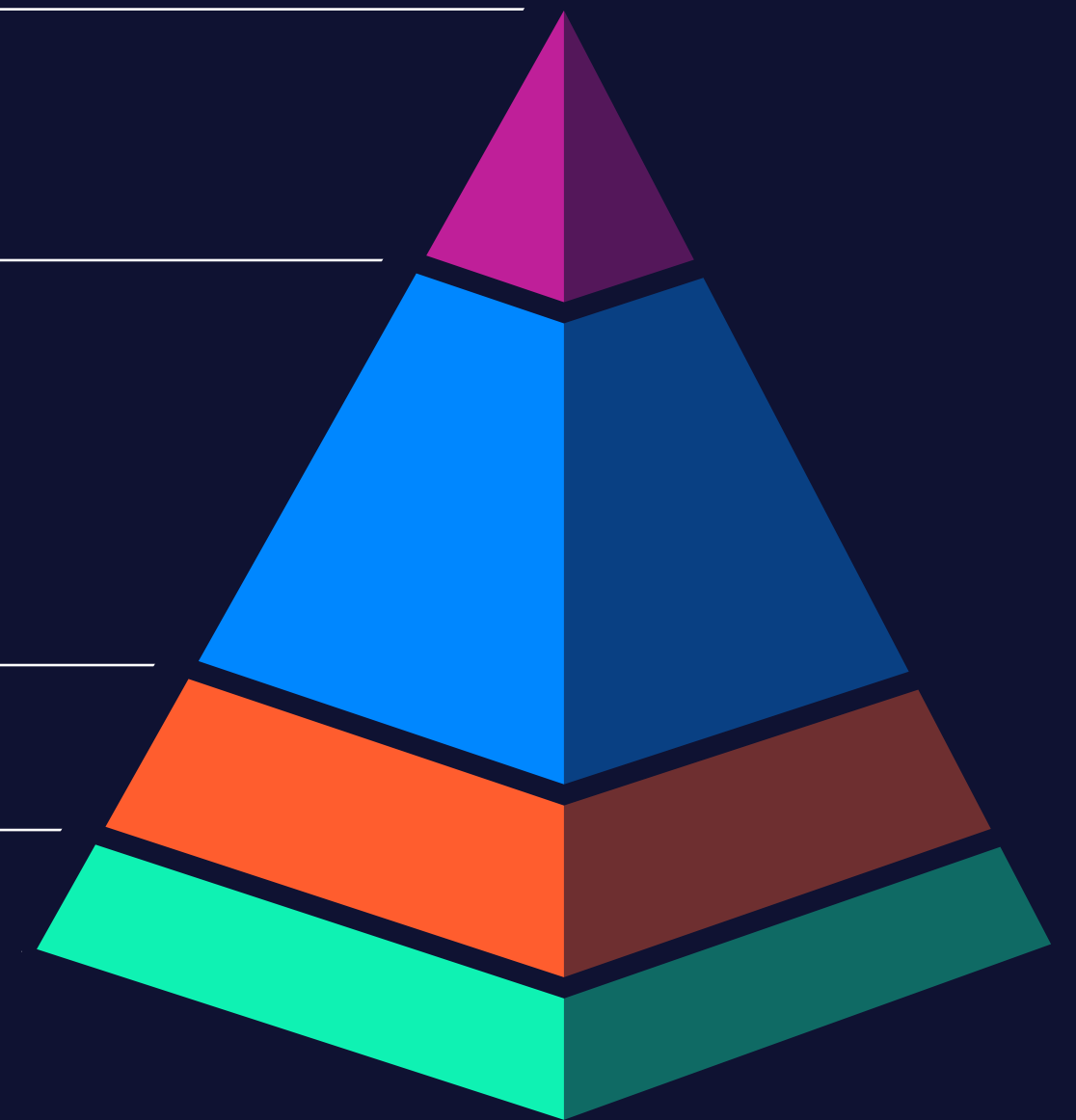
탄소 배출량 감축 전략

22% SBTi 검증을 거친 전략 시행 중

52% 내부 전략은 있으나 외부 검증 없음

17% 현재는 없으나 전략 수립을 준비 중

9% 전략 없음



2.2 공시 준비도:

가시성은 확대됐지만, 일관성은 여전히 과제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성과에 대한 대외 공시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과의 진행 상황을 외부에 전달하는 방식은 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 기업의 49%는 연차보고서나 기업 웹사이트를 통해 기후 성과를 공개하고 있었으나, 31%는 외부 공시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 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화된 공시 채널의 활용도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CDP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였으며, SBTi를 활용하는 경우는 11%, 금융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경우는 10%에 그쳤습니다. 공시 채널이 일관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기후 공시 기준과 기대 수준이 아직 정착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의무 공시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업 간 준비 수준이 고르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응답 기업 구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설문은 중견 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는데, 이들 기업은 공시 요건이 명확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결과, 규제의 방향과 적용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공시 체계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의무 공시 확대 과정에서 기업 간 준비도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같은 제도 도입은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 재량적 공시의 여지를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의 경우, 통제 체계 구축, 데이터 출처 정합화, 산출물에 대한 검증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시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시 수준이 낮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뒤처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측정 체계 구축과 데이터 품질 개선과 같은 기초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시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시 전략을 조직의 실제 성숙도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준비 수준을 과도하게 부각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수준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기후 성과에 대한 대외 공시 현황

31%

약 3분의 1에
가까운 기업이
기후 성과를
외부에
공시하지 않음

15%

CDP를 통해 공시

11%

SBTi를 통해 공시

10%

금융 규제기관에 보고

2.3 측정 수준:

SCOPE 3에서 나타나는 병목 현상

기후 성과 관리에서 측정은 여전히 구조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Scope 3로 범위가 확대되면 측정 수준이 뚜렷하게 낮아집니다. Scope 1과 Scope 2를 측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0%와 34%였으며, 가치사슬 전반의 Scope 3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업은 25%에 그쳤습니다. 반면 11%는 배출량을 전혀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Scope 3 측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중요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하거나 생산을 외주화한 산업에서는 Scope 3 배출이 전체 기후 영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시에 Scope 3는 규제 당국, 고객, 투자자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cope 3 측정이 어려운 것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사와의 협업, 데이터 확보 여건, 측정 방식의 일관성이 핵심 과제로 작용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협력사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계와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Scope 3 배출이 어느 지점에 집중돼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데이터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실무에 활용하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측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Scope 3는 기후 목표가 실제 운영과 맞부딪히는 영역입니다.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Scope 3
25%*

Scope 2
34%

Scope 1
30%



* 전혀 측정하지 않는 기업: 11%

2.4 어슈어런스와 데이터 신뢰성: 리스크 관리에서의 신뢰

기후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은 아직 기업별로 접근 방식이 엇갈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9.7%는 기후 데이터를 외부에서 검증받고 있었으며, 50.3%는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슈어런스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기업은 내부 시스템이 충분히 정비되거나 규제상 요구가 발생한 이후에 검증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검증을 이미 리스크 관리의 구성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데이터 신뢰도 확보, 주요 고객 또는 선호 협력사 지위 유지, 기후 관련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 성과가 법적 책임, 조달 자격 요건, 재무 공시와 함께 다뤄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검증의 역할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슈어런스는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증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점검되고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위해 검증 단계로 나아갈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다음](#)

기후 데이터 어슈어런스 현황

49.7%

검증 완료

50.3%

검증 미실시

2.5 진전의 장애 요인: 역량, 복잡성, 데이터

배출 감축의 장애 요인으로는 의지 부족보다는 실행 여건이 더 많이 지적됐습니다. 응답 기업의 57%는 예산이나 자원 부족을, 49%는 공급망의 복잡성을, 32%는 데이터 품질이나 접근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경영진의 공감대 부족을 언급한 비율은 15%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 성과가 이미 전략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특히 협력사 관리와 데이터 시스템과 관련된 역량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식 제고만으로는 배출 감축이 크게 앞당겨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진전은 도구와 역량이 갖춰지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 마련될 때 나타납니다.

모든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리스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력사 참여와 검증 수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기후 문제와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고,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문제입니다.”



2.6 2026년 기후 성과 리스크에 대한 종합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장은 이미 선언적 목표 설정 단계를 넘어 실제 이행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를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후 목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측정 체계도 점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리스크는 주로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검증 체계의 미비, 공시 준비 수준의 편차, Scope 3에 대한 가시성 부족, 그리고 제한적인 수준의 검증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기후 대응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라기보다는, 다음 단계의 성숙 과정에서 보완이 집중될 영역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기대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는 환경에서 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투자를 확정하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맞춰 투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시장은 규제와 고객 요구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성, 공급망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근거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규모에 맞는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유연성을 반영해 두는 기업일수록, 갑작스러운 요구 변화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책임 있는 조달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와 증빙 및 참여 체계 강화

케빈 프랭클린(Kevin Franklin)
LRQA 최고제품책임자



지난 10여 년간 책임 조달은 정책 중심의 선언 단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관리가 실제 운영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역시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동시에, 2026년 기준 책임 있는 조달 관련 리스크를 규정하는 구조적 과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협력사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어슈어런스 수준과 증빙, 그리고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관여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1 협력사 평가 범위: 당분간은 ‘확대’보다 ‘심화’ 중심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대부분은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사 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범위를 살펴보면, 특정 협력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책임 있는 조달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4%는 핵심 협력사에 한해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또한 21%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15%는 어떤 협력사에 대해서도 ESG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비중은 크지 않지만 현재 협력사 관리 수준의 편차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한된 자원과 복잡한 협력사 구조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협력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면, 지출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에 관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식은 많은 기업에서 1차 협력사 관리 수준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적 범위가 단계적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사실상의 상한선으로 굳어질 때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 밖에 있는 하위 단계 협력사는 인권, 환경 영향, 윤리적 이슈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등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평가 범위가 규제 대응 부담과 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선택적 평가를 넘어, 협력사 세분화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중심 확장에 있습니다. 초기 핵심 협력사 중심의 평가를 발판으로 삼아 관리 범위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기업일수록, 내부 조직과 협력사 모두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급망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협력사에 먼저 집중하는 건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다만 제대로 성과를 내는 조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토대로 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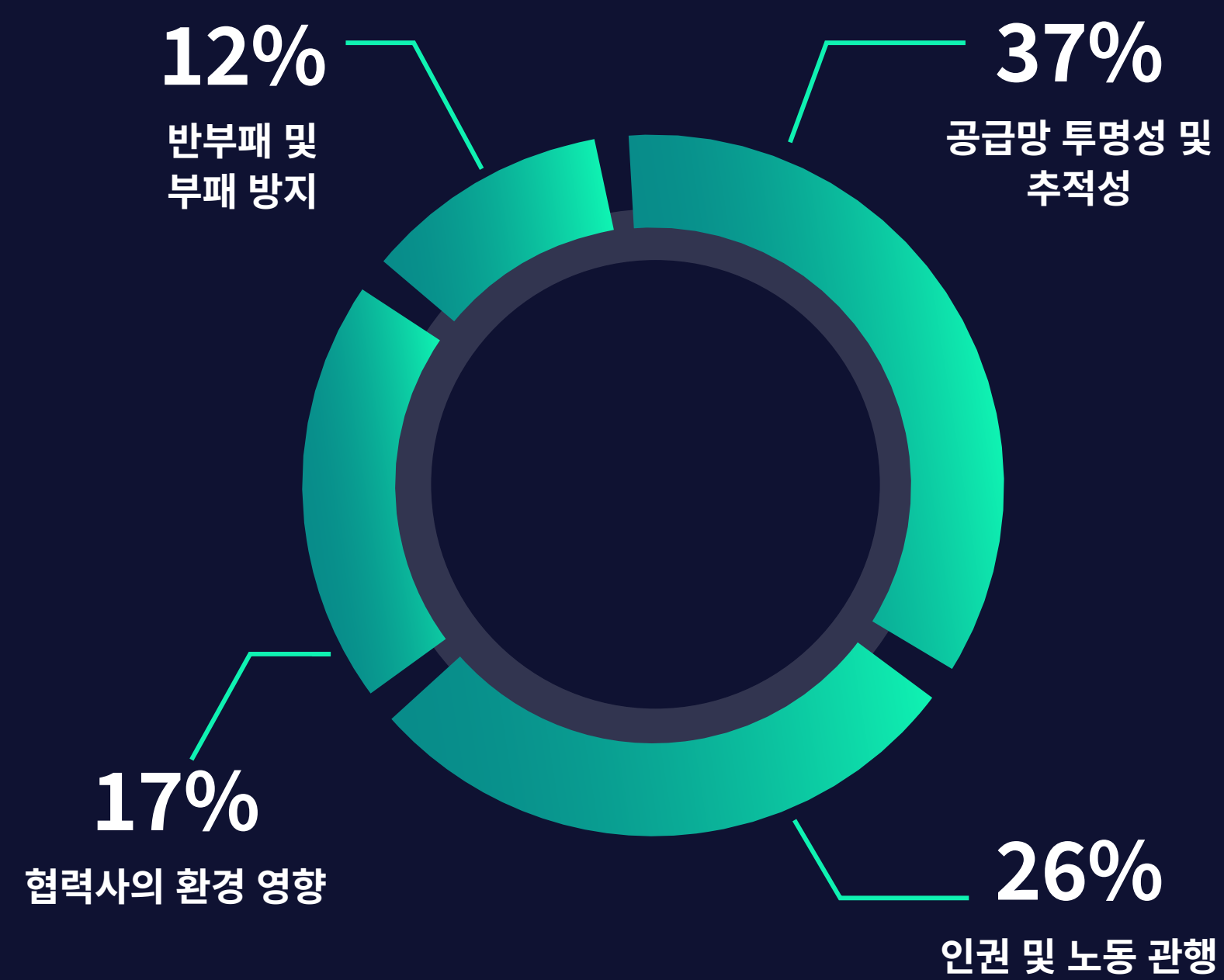
3.2 주요 리스크 영역: 투명성이 핵심 기반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는 공급망 투명성과 추적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권 및 노동 관행이 26%로 그 뒤를 이었고, 협력사의 환경 영향은 17% 수준이었으며, 반부패 및 부패 방지 항목은 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방향을 드러냅니다. 투명성과 추적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가깝습니다. 협력사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원자재와 제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지, 공급망에 어떤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노동 환경이나 환경 영향, 윤리적 리스크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명성이 강조되는 흐름은, 개별 리스크를 각각 관리하기보다는 공급망의 구조와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관리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 추적성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공시와 보고의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면서, 검증 과정에서 공백이나 불일치가 드러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3.3 검증 체계: 기존 수단에 집중된 구조

책임 있는 조달에서 검증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설문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익숙한 기존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력사 자가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6%, 내부 또는 외부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54%로 집계됐습니다. 인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33%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보다 확장성이 높은 데이터 기반 방식은 아직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맵이나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고, 검증 체계가 전혀 없다고 답한 기업도 12%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심사와 자가평가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방식이라는 점과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고, 협력사 수가 많거나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경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는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접근입니다. 디지털 리스크 정보, 협력사 데이터 플랫폼, 목적에 맞는 인증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조직일수록, 리스크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심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어슈어런스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함께할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3.4 진전의 장애 요인: 참여, 비용, 데이터

책임 있는 조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협력사의 참여 부족을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협력사의 소극적인 태도나 낮은 참여 수준을 지적인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이 47%,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44%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부 전문성 부족을 언급한 응답은 30%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책임 있는 조달 관련 리스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과제는 기대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를 실제 이행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협력사들은 자체적인 자원 제약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고객으로부터 때로는 상충되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에 대한 공감대와 지원, 또는 명확한 유인이 없을 경우 협력사의 참여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회는 책임 있는 조달을 단순한 준수 과제가 아니라, 협력 기반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과 역량 강화, 그리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대 수준을 제시하는 접근은 협력사의 성과 개선을 돕는 동시에, 관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및 저항 요인



협력사의 소극적인 대응 또는 낮은 참여 수준

53%

비용 부담

47%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44%

내부 전문성 부족

30%

경영진의 공감대 부족은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추진 의지는 확보된 상태로 보입니다.

3.5 책임 있는 조달 관련 기후 이슈: 도입 단계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을 함께 관리하려는 시도는 점차 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수준은 아직 고르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33%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핵심 협력사에 한해 이미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고, 모든 협력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반면, 기후 관련 요구 사항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18%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해 기후 이슈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협력사의 대응 방식이 Scope 3 배출 감축과 기후 회복력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협력사 전반에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설정과 데이터 확보, 그리고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요소를 책임 있는 조달 체계 안에 함께 반영하는 기업은 배출 감축, 실사 대응, 협력사 회복력 관리를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로 묶어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복을 줄이면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81%는 기온 상승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탈진, 탈수, 질병, 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5%는 이러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거나 도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6 2026년 책임 조달 리스크에 대한 종합 분석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장은 정책과 원칙을 선언하는 단계를 넘어 협력사에 대한 실제 관리 단계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리스크는 인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얼마나 넓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기존 체계와 통합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택적인 관리 범위, 기존 검증 수단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제한적인 협력사 참여는 기대 수준이 높아질수록 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과제는 분명한 개선 방향도 함께 보여줍니다. 리스크 기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사를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로 보완하며,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참여를 이끌어가는 접근은 규제 대응과 공급망 회복력을 함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임 있는 조달은 점점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 조직은 협력사 관리를 일회성 과제가 아니라, 규제 환경과 공급망 현실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4. 통합 리스크: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의 연계

이전

다음



리암 살터(Liam Salter)

LRQA 계열사 RESET Carbon 최고경영자(CEO)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이 각각 고도화되면서, 그동안 분리해 운영해 온 관리 체계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출 감축, 인권 실사, 협력사의 회복력, 규제 대응은 더 이상 개별 과제가 아니라, 협력사 관리 현장에서 동시에 다뤄져야 할 요소로 얹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체계와 거버넌스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통합’이 2026년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자, 비교적 명확한 방향 설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리스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4.1 부서 간 연계 수준: 일부 진전에도 부족한 연계 수준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두 영역이 충분히 연계돼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39%는 일부 수준의 연계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27%는 연계가 없거나(12%) 각 기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15%)고 응답했습니다.

두 영역 간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0%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기업에서 두 영역이 여전히 각자 발전해 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은 서로 다른 규제 요건이나 이해관계자 요구, 내부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병행적으로 확대돼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일정 수준의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목표 설정 방식이나 데이터 관리 체계, 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능이 나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초기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별 관리 체계만 놓고 보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Scope 3 배출 관리나 실사 규제 대응, 협력사 차원의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부서 간 연계가 부족할 경우 같은 업무가 반복되거나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협력사에는 일관되지 않은 요구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해결의 핵심은 기후와 책임 있는 조달을 따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두 영역을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함께 다루는 조직은 구조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관리의 혼선을 줄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과 평가 기준,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근거를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리가 의도해서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기후와 조달을 함께 바라볼 때, 조직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운영 효율과 회복력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4.2 기후 목표에 대한 협력사 참여: 실행 단계의 공백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이 실제로 맞물리는 지점은 협력사가 얼마나 함께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망 배출과 기후 리스크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를 협력사 수준의 행동으로까지 연결한 경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협력사가 기후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일부 수준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37%였고, 협력사의 관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도 45%에 달했습니다. 기후 목표와 협력사 간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한 경우는 7%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 관련 요구를 기업의 범위를 넘어 협력사로까지 확장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이 아직 배출 관련 데이터 확보나 관리 체계 정비, 내부 의사결정 기준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협력사와의 본격적인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사 역시 인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확대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기후 대응이 기업 내부에서만 머무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협력사의 참여 없이는 Scope 3 배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가치사슬 전반의 대응 수준 역시 균형 있게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결의 출발점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공동 목표를 설정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함께 정리하고,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처럼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협업부터 시작하더라도, 협력사의 참여를 이끌고 공급망 전반에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발전 단계



4.3 협력사 유인책과 지원 방식: 협력사 참여 확대를 위한 수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 목표와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해 협력사를 지원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아직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대 협력사 지정은 26%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교육이나 역량 강화 지원은 24% 수준이었습니다. 공동 과제 추진이나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반면, 어떤 지원이나 유인책이 마련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였고, 별도의 지원이나 유인책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42%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사에 대한 유인과 지원이 일부 도입되기는 했지만, 아직 일반적인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에서 협력사 관리는 여전히 요구 사항 전달과 이행 여부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함께 성과를 만들어 가는 관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협력사 입장에서는 추가 요구가 기회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참여 수준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인과 지원은 단순한 혜택 제공이 아니라,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공동 개선 활동, 성과에 대한 인정은 미이행 가능성을 낮추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협력사와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점검과 통제 중심의 방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혼선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력사는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대 수준과 지원이 함께 제시될 때, 성과는
개선되고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4.4 거버넌스 관련 시사점 - 통합이 필요한 이유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을 함께 관리하는 문제는 이제 논의 차원을 넘어 실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규제 요구가 구체화되고 이해관계자의 점검이 강화되는 한편,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실제 운영 현장에서 나타나면서, 두 영역을 연계한 관리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SRD와 CSDDD 등 관련 제도는 기후 데이터, 공급망 실사 결과, 공시 내용이 서로 맞물려 일관되게 관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로 인한 차질은 이미 협력사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를 업무 전반에 충분히 반영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개선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부서 간 협의를 이어가는 수준을 넘어, 관리 체계 자체를 함께 정비해 나가는 조직일수록 거버넌스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고 중복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4.5 2026년 통합 리스크에 대한 종합 분석

통합 리스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위험이라기보다, 다른 리스크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이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면 데이터의 누락이나 불일치가 계속되고, 협력사의 참여도 약해지며, 규제 대응 역시 뒤따라가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두 영역이 함께 관리될 경우, 동일한 리스크도 보다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이미 일정 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두 영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도 다수였습니다. 2026년을 향한 과제는 이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관리 체계와 목표 설정, 어슈어런스 방식을 정비해 각각 따로 움직이던 관리 방식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묶어 가는 데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조직은 규제 대응을 넘어, 리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협력사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한 공시와 설명의 신뢰성 역시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5. 업종별 분석: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양상

리앤 홀리데이(Leanne Halliday)
LRQA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부문 총괄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한 리스크는 산업과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산 규모와 구조, 공급망의 복잡성, 규제 적용 범위, 사업 지역 분포 등 업종별 여건에 따라 리스크의 내용과 관리 방식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산업별로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대응 수준과 노출도, 준비 상황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1. 식음료 산업

식음료 산업은 물리적 기후 리스크와 공급망 의존도가 모두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목표에 대한 협력사 참여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응답자의 8%는 협력사와의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41%는 일부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산물 등 기후 영향을 크게 받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5%는 모든 협력사 또는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요구 사항을 책임 있는 조달 정책에 포함하고 있다고 답해, 협력사에 대한 기대 수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됩니다.

반면 협력사 지원과 관련된 유인 방식은 아직 일관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공동 과제 추진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으며, 별도의 유인이나 지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후 대응 목표와 협력사 참여를 보다 긴밀히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기후 변동성이 수확량과 가격,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산업

에너지 업종에서는 기후 리스크가 운영과 전략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협력사의 기후 목표 참여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16%는 협력사와의 연계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고, 27%는 일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너지 가치사슬의 복잡성과, 다양한 협력사를 하나의 기후 전략 아래에서 맞추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간의 거버넌스 연계 수준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2%는 두 영역이 일부 연계돼 있다고 답했으며, 30%는 완전한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규제와 고객의 점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 성과와 안전, 공급 연속성이 함께 고려되는 영역에서 보다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5.3 운송업

운송 업종은 물리적 기후 영향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와 조달 기능 간의 연계 수준에는 편차가 있었습니다. 기후와 책임 있는 조달 조직이 충분히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였고, 39%는 일부만 연계돼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연계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물류망과 기반시설, 외부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 목표와 관련한 협력사 참여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응답자의 10%만이 협력사가 기후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8%는 일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이변이 운송 경로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조달·운영·리스크 관리 간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5.4 소비재 산업

소비재 업종에서는 협력사와의 기후 관련 협업이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3%는 기후 목표와 관련해 일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0%는 협력사가 기후 목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조달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과, 소비자 대상 지속가능성 요구가 이어져 온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기후 관련 협력사 요구 사항은 아직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협력사 또는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당 요구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으며, 43%는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기후 이슈가 제품, 브랜드, 규제 리스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미 진행 중인 협력사 협업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요구 사항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5.5 제조업

제조업은 자산 관련 리스크, 인력 관련 이슈, 공급망의 복잡성이 함께 나타나는 업종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후 목표에 대한 협력사 참여 수준은 중간 정도로, 응답자의 34%는 일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협력사와의 연계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5%에 그쳤습니다.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간의 관리 체계 연계 역시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로, 44%는 일부 연계, 24%는 완전한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후 관련 협력사 요구 사항을 전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으며, 32%는 아직 적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과 운영상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배출 관리와 공급 안정성, 노동 여건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5.6 기타 산업

헬스케어, 건설, 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등 기타 업종에서도 비슷한 변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기후와 조달 기능은 대체로 일부만 연계돼 있었고, 협력사 참여 역시 상시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후 관련 공식 요구 사항도 이미 정착된 경우보다는, 현재 정비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 업종은 이미 마련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각 업종의 리스크 수준과 운영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 업종별 차이에 대한 해석

업종별 분석 결과를 보면, 리스크의 수준도 대응 단계도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한 리스크는 업종별 여건에 따라 발생 양상과 관리 방식이 달라지며, 이를 다루는 체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업종에서 어떤 부담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동종 업계와 비교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조직일수록, 대응의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설정하고 협력사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후 성과 관리와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물리적 기후 리스크: 공급망 차질, 노출 수준 및 대응 역량

[이전](#)[다음](#)

샤시 메논(Shashi Menon)

LRQA 계열사 EcoEngineers 최고경영자(CEO)



물리적 기후 리스크는 이제 장기적인 우려 사항이 아니라, 많은 조직에서 실제 경영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상 이변과 기후 패턴의 변화, 자원 여건의 악화는 이미 공급망 운영, 자산 활용 가능성, 물류 네트워크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인식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1 기후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차질 확대

응답자의 61%는 자사의 공급망이 하나 이상의 기후 리스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급망 차질은 그 영향이 크거나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경우 실제보다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기후 요인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항목은 홍수로, 해당 응답자의 65%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태풍과 허리케인을 포함한 강풍·폭풍 피해가 61%로 뒤를 이었으며, 폭염은 44%, 가뭄과 물 부족은 40%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파와 산불 등 기타 요인은 상대적으로 언급 빈도가 낮았으나, 특정 지역과 산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물리적 기후 리스크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며, 기업이 하나의 기후 요인에만 노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둘째, 공급망 차질은 더 이상 일부 고위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기후 리스크는 더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수 기업에서 이미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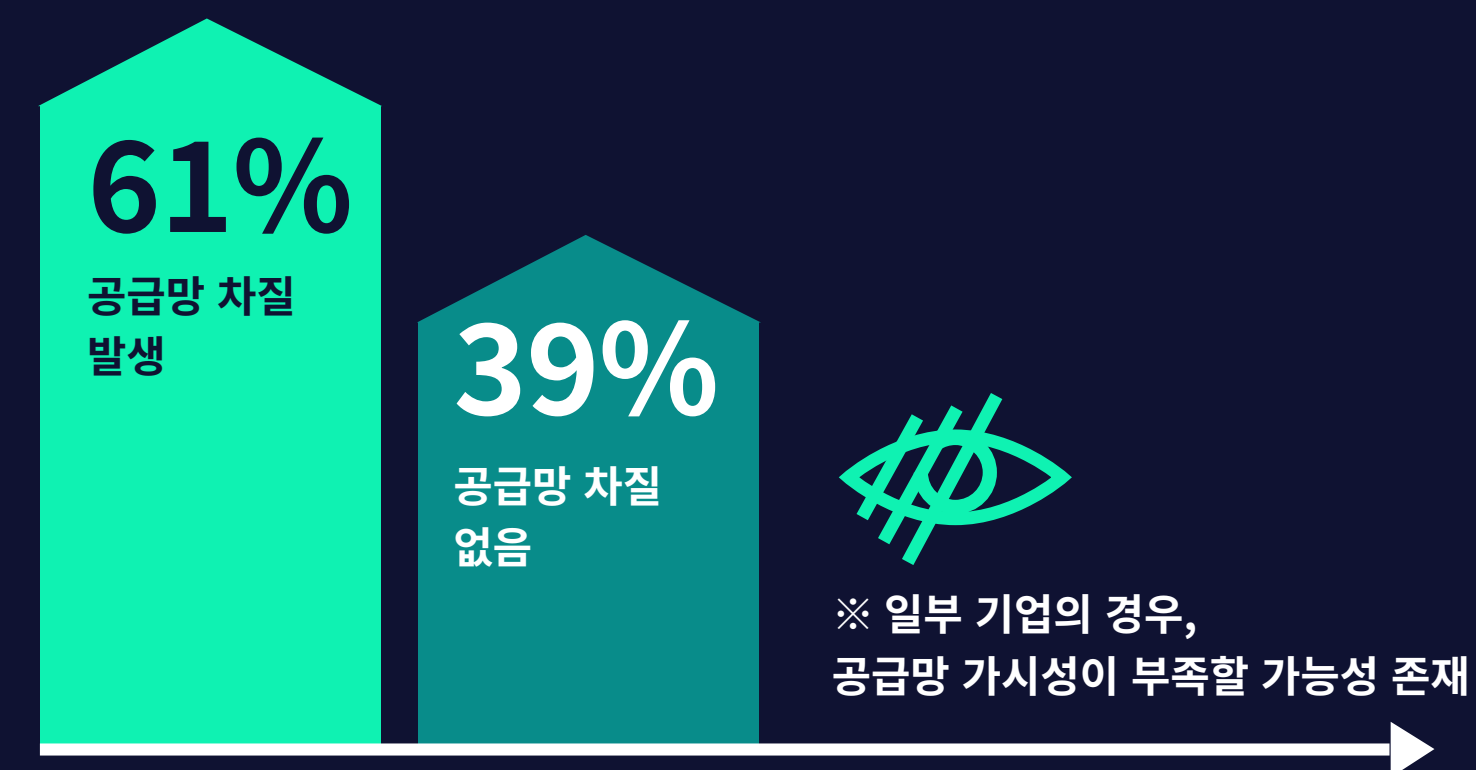
6.3 기후 리스크 인식 수준과 공급망의 실제 취약성

응답자의 61%는 공급망이 하나 이상의 기후 리스크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39%는 그러한 위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급망 대응 여력이 충분하거나 특정 지역 의존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다만 하위 협력사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적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공급망은 복잡해지고 단계도 길어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급망 차질이 직접 거래하는 협력사가 아닌 하위 단계의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 중단보다는 납기 지연, 비용 상승, 품질 문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리·점검 체계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기후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망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망 전 단계를 대상으로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기업일수록 취약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공급망 차질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대응 현황



6.3 대응 준비와 실행: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움직임

기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39%는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점검하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조치로는 협력사 다변화, 시설 보강, 시나리오 검토, 비상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기업에서 기후 리스크를 일시적인 문제로 보기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후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 가운데 실제 대응에 착수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준비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제약, 내부 역할과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협력사와 지역, 업무 영역 전반에 걸쳐 리스크가 분산돼 있는 구조가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대응 수준은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이미 기후로 인한 공급망 차질을 겪은 기업은 기존 대응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데 비교적 수월한 반면,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겪지 않은 기업은 문제 발생 이전에 준비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협력사 관리, 구매·조달 판단, 전사적 리스크 관리 과정에 함께 반영할 경우, 공급망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탄력성은 준비 과정에서 축적됩니다.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미리 점검한 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6.4 물리적 기후 리스크, 근로자 복지와 협력사 회복탄력성

물리적 기후 리스크는 한 기업에만 국한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협력사나 물류업체, 기반시설 운영 주체를 거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협력사의 대응 여력이 기업 전체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책임 있는 조달 정책과 협력사 관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확인됩니다. 기후에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협력사의 경우, 홍수·폭염·가문과 같은 요인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 환경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1%는 기온 상승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우려 요인으로는 열탈진과 탈수, 질병 발생, 산업재해 위험 등이 꼽혔습니다. 이 가운데 65%는 이미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O 45001과 같은 기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활용하거나, 내부 안전·보건 절차를 보완하고, 폭염·홍수·화재 등 기후 요인을 반영한 관리 기준을 새로 도입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 안전과 건강 관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대응 역시 단순한 인식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 요인 점검, 기준에 따른 관리 수준 확인, 예방 조치 마련, 대응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차질과 비용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근로자 안전을 협력사 관리와 리스크 점검 과정에 포함할 경우 책임 있는 조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대응 전략은 또한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점검을 통해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5 2026년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대한 종합 분석

물리적 기후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보면, 공급망 차질은 이미 상당수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은 기업 가운데 다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후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특히 공급망 구조가 복잡하거나 사업 지역이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기후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관리 여부에 따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급망 관리, 점검, 어슈어런스, 계획 수립 과정에 기후 위험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기업일수록,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기후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리적 기후 리스크는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협력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점을 운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



7. 규제 환경 전망: 대응 준비 수준과 주요 쟁점, 적용 시점

올가 리바스(Olga Rivas)

LRQA ESG 기술 매니저



규제는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준과 달리, 규제는 적용 시기와 범위가 명확하며, 이에 대한 책임 이행이 전제로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대응 준비 수준은 기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는 한편, 조기에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상대적인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규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규제나 요구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각국의 환경 관련 법규와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꼽았습니다. 이들 규제는 보고 의무, 지배구조 운영, 데이터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당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향후 적용이 예정된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는 응답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비유럽권 규제에 대한 파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노출이 크지 않거나, 적용 범위와 집행 방식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응답자의 17%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규제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규제 환경을 고려하면, 이는 기업의 관리 체계 측면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제 요구 사항이 늘어나고 서로 유사한 기준으로 정리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지고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변화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규제뿐만 아니라 향후 도입 방향까지 함께 검토할 경우, 내부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촉박한 대응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제 리스크는 규정 그 자체보다, 언제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변화를 미리 내다본 기업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훨씬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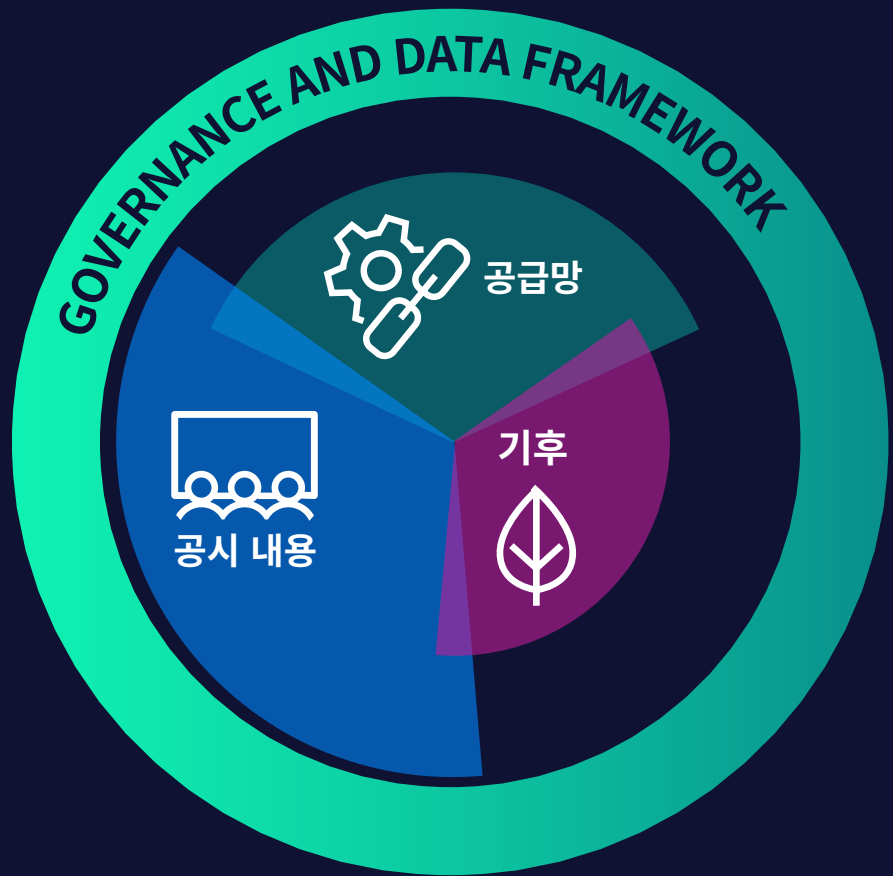
7.2 규제 대응 준비 수준의 차이

설문조사 결과, 규제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업은 보고와 실사 요구 사항을 이미 지배구조와 운영 절차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기업에서는 데이터 부족,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다른 과제와의 우선순위 문제로 인해 준비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준비 수준의 차이는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을 동시에 다루는 규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CSRD와 CSDDD와 같은 규제는 배출량 데이터, 협력사 관리, 리스크 점검, 공시 내용이 서로 맞물려 운영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 요소가 각각 따로 관리되는 경우, 규제 대응 과정은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규제는 단순히 대응해야 할 행정 절차로 보기보다, 관련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규제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기후 성과 관리와 조달 관련 관리 체계를 함께 정리할 경우,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면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제적 요구 사항



7.3 증빙 자료와 어슈어런스 체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증빙 자료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규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절차와 관리 방식, 통제 체계, 그리고 이에 대한 어슈어런스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출 감축, 협력사 성과,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내용 역시 점검이 가능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과 측정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이러한 증빙 체계를 아직 정비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슈어런스 절차와 문서 관리 방식, 측정 기준의 일관성을 차례로 정리해 나갈 경우,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 관련 질의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어슈어런스는 외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며, 의사결정의 근거를 정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7.4 2026년 규제 리스크에 대한 종합 분석

2026년의 규제 리스크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보다는, 여러 규제가 유사한 방향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기후 성과, 책임 있는 조달, 공시 관련 요구 사항은 점차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버넌스 운영과 데이터 관리 수준, 책임 이행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비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변화 흐름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인식한 기업일수록 규제에 보다 수월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응이 늦어진 기업도 규제 준수는 가능하나,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운영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는 단순히 충족해야 할 요건에 그치지 않고, 내부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응을 단기적인 조치로 접근하기보다 사전에 준비할 경우, 규제 준수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리스크 관리에서 회복탄력성 확보로: 2026년 이후의 시사점

이전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 전반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요소를 실제 업무와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향후 대응 과정에서의 주요 리스크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리스크는 기업의 의지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주요 원인은 목표로 설정한 내용과 실제 운영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로, 데이터의 신뢰성, 협력사 관리 범위, 부서 간 협업 수준, 어슈어런스 체계 등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규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공급망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규제 당국과 고객, 투자자에게 점차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대응 방향: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을 담당하는 기업에는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리스크를 한 번에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한정된 예산과 자원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원 부족은 여전히 대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어떤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이 확인됩니다. 거버넌스 운영을 정비하고, 측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협력사와의 협업을 강화할 경우 전반적인 신뢰도와 회복탄력성을 함께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는 대응에 필요한 비용과,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감수해야 할 부담을 어떻게 비교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한정된 예산과 자원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원 제약은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리스크를 동일하게 다루기보다는, 대응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 기반 분석은 예상되는 차질을 점검하고 가정을 검토하며, 영향이 큰 리스크에 자원을 집중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성과는 모든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서 나오기보다, 효과가 분명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3 제약된 여건 속 협력과 역량 보완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과 관련한 요구 사항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외부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전담하는 고위 책임자를 두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어슈어런스, 인증, 교육, 산업별 정보 제공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력 구조를 활용할 경우, 내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획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대응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4 향후 과제

기후와 조달 관련 대응은 목표나 약속을 선언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이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리스크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언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쌓아온 기업일수록 높아지는 요구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보다 중요도가 높은 과제에 집중해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대응에 대한 신뢰와 조직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함께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9. 종합 정리: 보고서가 시사하는 핵심 메시지

이전

다음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데이터 검증의 부재

리스크:

2026년을 앞두고 많은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설정한 목표의 수준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사이의 간극입니다. 기후 목표는 여전히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경우가 많고, Scope 3 배출량에 대한 이해 역시 제한적인 데다, 책임 있는 조달 체계도 상당 부분 1차 협력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제 당국과 이해관계자의 검증과 요구가 점차 강화되는 환경에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컴플라이언스 대응은 물론 기업 평판과 조달 과정에서의 적격성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제약은,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사업적 근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복잡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솔루션:

지속가능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사업 기회, 예산 규모, 내부 역량과 함께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LRQA는 세분화 분석과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을 활용해, 기업이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노출

기회:

중요도가 높은 리스크와 기회를 분명히 구분해 낸 기업은 전략과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리스크 관리의 비용 부담이 아닌 사업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며, 실행 과정에서도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대비 성과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규제 리스크로 이어지는 공급망 사각지대

리스크:

일부 협력사만 관리하고, 협력사의 자가평가에 의존하거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추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환경·기후 관련 리스크가 쉽게 가려집니다. 실사 관련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주요 협력사 밖에 존재하는 이러한 사각지대는 점차 법적 책임과 기업 평판에 대한 부담으로

솔루션:

향후 책임 있는 조달은 리스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LRQA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력사를 구분하고, 현장 점검과 디지털 리스크 정보를 함께 활용해, 내부 조직과 협력사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어슈어런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기회:

공급망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예기치 못한 문제는 줄어들고, 협력사와의 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협력사에 국한되지 않고 책임 있는 조달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은, 계약 확보와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강화되는 외부 검증 환경 속에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COPE 3 배출은 기후 성과 관리의 핵심 과제

리스크:

Scope 3 배출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감축 활동에 한계가 생기고, 기후 전략도 실행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향후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여력도 약해집니다. 배출량과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리스크가 가치사슬의 어느 구간에 집중돼 있는지 모른 채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사례도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규제 기준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기업마다 서로 다른 방식의 모니터링과 보고를 낳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솔루션: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 관리할 것인지 정하는 일입니다. LRQA는 Scope 3 배출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선을 마련하고, 기후 관련 요구사항을 통해 협력사의 참여를 유도하며,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검증 기준과 방식으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회:

Scope 3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협력사의 대응력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전환 과정에 대한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시 요구에 대한 대응은 물론 협력사에 대한 영향력과 실제 감축 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와 비용을 키우는 분리된 거버넌스 체계

리스크:

기후 성과 관리와 책임 있는 조달이 서로 연계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고 유사한 업무가 반복되는 한편, 외부에 전달되는 설명의 일관성도 떨어져 규제 대응이나 심사, 대외 검증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과 리스크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솔루션:

이제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불가피한 과제가 됐습니다. LRQA는 공통된 데이터 체계와 연계된 검증 구조, 협력사 관리 방식을 통해 기후 대응과 책임 있는 조달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정리하고, 배출 관리, 인권 이슈,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회: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하면 업무 복잡도는 낮아지고, 의사결정은 한결 수월해지며, 외부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해집니다. 기후 대응과 조달 관리를 함께 관리하는 기업은 운영 효율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단순한 보고 항목이 아닌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전반에 확산되는 이상기후의 물리적 영향

리스크:

이상기후의 영향은 이미 많은 공급망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하위 협력사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망 전반에서 이러한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기업은, 지역 단위의 문제가 짧은 시간 안에 공급 차질로 확대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솔루션:

물리적 기후 리스크는 협력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LRQA는 기후 리스크 평가와 공급망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출 수준과 협력사의 대응 역량을 함께 반영한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회: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할수록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대응 역량은 강화됩니다. 공급망 내에서 이상기후 리스크가 집중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기업은 조달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하고,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을

향후 전략적 대응 방향

앞으로의 기후 성과 관리와 책임 있는 조달은 단순한 범위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근거를 갖추고 이를 하나의 관리 체계로 연결해 실제 운영으로 이어갈 수 있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리스크는 이미 여러 영역에 걸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각 부문이 따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검증된 기후 성과 관리와 확장 가능한 책임 있는 조달 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된 관리·검증 구조에 투자하는 기업은 규제 대응을 넘어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의사결정의 근거가 명확해지고, 협력사 관리도 한층 수월해지며, 점점 더 엄격해지는 리스크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은, 리스크를 단순한 부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동을 촉발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있습니다. 리스크를 출발점으로 삼아 방향을 정하고, 일관되게 실행하며,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리스크와 규제 기준이 맞물리면서, 기업이 평가받고 신뢰를 얻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받는 기업은 각종 기후 목표나 조달 원칙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검증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과 책임 있는 조달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운영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리스크를 걱정할 때, LRQA는 가능성을 봅니다.

LRQA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복잡한 리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람과 기술,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복잡성이 큰 영역에서도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분석과 파트너십, 서로 연계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업이 규제 대응에 그치지 않고, 운영과 공급망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비즈니스에 실제로 중요한 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서 이용 안내

이 보고서는 LRQA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LRQA가 발간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기후 성과와 책임 있는 조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LRQA의 자체 조사 결과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축적된 LRQA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내용의 오류나 누락, 또는 해당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LRQA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재배포하려면 사전에 LRQA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출처 표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명은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법률, 재무 또는 전문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독자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RQA 소개

LRQA는 글로벌 리스크 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파트너입니다.

LRQA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고객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증, 사이버 보안, 안전, 지속가능성, 공급망 리질리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함께 식별하고, 고객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스마트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설계함으로써 리스크를 예방, 대비,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고객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업계 노하우,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어슈어런스, 인증, 검사, 어드바이저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RQA는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 61,000개 이상의 고객과 함께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RQA - 고객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 파트너

문의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LRQA.COM/KO-KR)를 방문해주세요.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EiQ의 최신 리스크 전망 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